

의안번호	2218258
의 퇴 인	강명구 의원
회 답 일	2026.06.15.
추계번호	26E21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비과세소득 구간·납입한도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비과세소득 기준을 200만원에서 600만원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에서 1,200만원)으로 인상하고,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(총 1억원)에서 6천만원(총 3억원)으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428억원, 2031년 1,533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4,473억원(연평균 8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 한도 인상(안 제91조의18)	-428	-589	-810	-1,114	-1,533	-4,473	-89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비고
1	안 제91조의18(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○ ISA 비과세 소득 구간 3배 확대 및 납입한도 3배 인상				—
				현행	개정안	
		비과세 소득	일반형	~200만원	~600만원	
			서민·농어민형	~400만원	~1,200만원	
		납입금액 한도		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	연간 6천만원, 총 3억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(비과세 확대) 최근 ISA 소득세 신고자료(국세청)¹⁾를 활용하여 비과세 소득 기준 인상 시 감면세액 변화를 추정²⁾

- ISA 소득금액이 현행 비과세 기준금액(일반형 200만원, 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)을 상회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, 개정안의 감면대상으로 반영
 - 소득금액이 개정안의 비과세 기준 미만(일반형 200~600만원, 서민·농어민형 400~1,200만원) : 현재 비과세 기준을 초과해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액 전액이 비과세로 전환³⁾
 - 소득금액이 개정안의 비과세 기준 이상(일반형 600만원~, 서민·농어민형 1,200만원~) : ‘인원×1인당 최대 비과세 전환 소득*×세율(9%)’의 금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계

※ (1인당 최대 비과세 전환 소득) 일반형 400만원(=600만원-200만원),

서민·농어민형 800만원(=1,200만원-400만원)

- ISA 계좌 유형(일반형, 서민·농어민형)에 따라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이하나, ISA 소득세 신고자료에서는 계좌 유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신 별도

1) 이자·배당소득지급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0호서식) 상의 ISA 소득신고 인원, 소득금액, 원천징수세액 자료

2) 현행 제도 하에서 ISA 과세특례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277억원 수준

[표] ISA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 실적

	2020	2021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(억원)	24	138	54	75	277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3) ISA 소득세 신고자료에는 분리과세 세율(9%) 외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(만기 전 해지 등)도 포함되어 있으나,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

비율(ISA 투자금액 기준 계좌 유형 비율)을 적용

- 모든 소득구간에서 계좌 유형별 투자금액 비중과 소득(세액)의 비중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- (납입한도 인상) 추가 납입금액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납입한도 인상과 동일한 배율로 소득(소득세액)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-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소득세 실적을 활용하여 추계하되, 향후 세수 효과는 최근 ISA 투자금액의 증감률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현황

-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, 2024년 연간 ISA 소득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상회하여 소득세액을 납부(세율 9%)하는 것으로 신고한 인원은 7.0만명, 소득세액은 95억원 수준
 - ISA는 계좌 유형별로 비과세소득 기준금액이 상이
 - (현행) 일반형 200만원, 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
 - 다만 동 소득세 신고자료는 계좌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

[표 2] ISA 소득세 신고 인원 및 소득세액 실적: 소득구간별, 2024년 귀속

(단위: 명, 억원)

ISA 소득 구간	인원	소득세액
200~400만원	58,642	17
400~600만원	4,248	13
600~1,200만원	2,916	15
1,200만원~	3,825	50
합계	69,631	95

주: 1. 이자·배당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신고자료로, ISA 소득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표기함

2. 동 자료에는 9% 외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(만기 전 해지 등)도 일부 포함됨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ISA 투자금액 자료를 살펴보면, 2024년 12월 말일 기준 계좌 유형별 비율은 일반형 ISA 47.8%, 서민·농어민형 ISA 52.2%로 집계됨

- 계좌 유형별 ISA 투자금액(금융투자협회, 2024.12.말일 기준):
일반형 ISA 15.7조원(47.8%), 서민·농어민형 ISA 17.2조원(52.2%)⁴⁾

나. 추계 내용

□ (인원 및 세액) ISA 전체 소득세 신고 인원 및 소득세액에 계좌 유형별 비율(일반형 47.8%, 서민·농어민형 52.2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3] ISA 소득세 신고 인원 및 소득세액 추정: 소득구간 및 계좌 유형별, 2024년 귀속
(단위: 명, 억원)

ISA 소득 구간	일반형		서민·농어민형	
	인원	소득세액	인원	소득세액
200~400만원	26,122	8	32,520	9
400~600만원	1,892	6	2,356	7
600~1,200만원	1,299	7	1,617	8
1,200만원~	1,704	24	2,121	26

주: 전체 인원 및 소득세액에 일반형 비율(47.8%) 및 서민·농어민형 비율(52.2%)을 각각 반영한 결과임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연간 감면세액 추정) 2024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, ISA 비과세소득 기준을 200만원에서 600만원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에서 1,200만원)으로 인상하고,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(총 1억원)에서 6천만원(총 3억원)으로 인상할 경우 감면세액은 16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
- 비과세 기준을 인상 시 연간 감면세액은 5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
 - (일반형) 소득 200~600만원 구간: 현행 소득세액이 모두 비과세로 전환
소득 600만원~ 구간: '인원×1인당 최대 비과세 전환 소득(400만원)×세율(9%)' 규모의 소득세액이 비과세로 전환
 - (서민·농어민형) 소득 400~1,200만원 구간: 현행 소득세액이 모두 비과세로 전환
소득 1,200만원~ 구간: '인원×1인당 최대 비과세 전환 소득(800만원)×세율(9%)' 규모의 소득세액이 비과세로 전환

4) 금융투자협회,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ISA 비과세소득 구간 확대 시 감면세액 변화 추정: 2024년 귀속

(단위: 억원)

ISA 소득 구간	일반형	서민·농어민형	전체
200~400만원	8	—	8
400~600만원	6	7	13
600~1,200만원	5	8	12
1,200만원~	6	15	21
합계	25	30	55

주: 일반형 600만원 초과 구간, 서민·농어민형 1,200만원 초과 구간은 1인당 최대 감면대상 소득금액(일반형 400만원, 서민형 등 800만원)에 분리과세 세율(9%) 및 인원을 곱하여 추정

- 납입한도 인상(3배)과 동일하게 감면세액도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할 경우, 개정안에 따른 연간 감면세액은 164억원(=55억원×3)으로 추정
 - 납입한도·소득 수준 등의 변화에 따른 추가 납입성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동일한 비율로 변화할 것으로 가정함

□ (세수효과) ISA의 비과세소득 기준 및 납입금액 한도를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428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4,473억원(연평균 8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2024년 귀속 기준 감면세액 추정치(164억원)를 바탕으로 하되, 최근 ISA 투자금액의 증가율 추세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2022년 대비 2025년 ISA 투자금액(연도 말일 기준)⁵⁾은 연평균 37.6% 증가

[표 5] ISA 비과세소득 기준·납입금액 한도 인상 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세수효과	-428	-589	-810	-1,114	-1,533	-4,473	-895

5) ISA 투자금액(연도 말일 기준,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): ('21) 13조원 ('22) 19조원 ('23) 23조원 ('24) 33조원 ('25) 48조원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 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